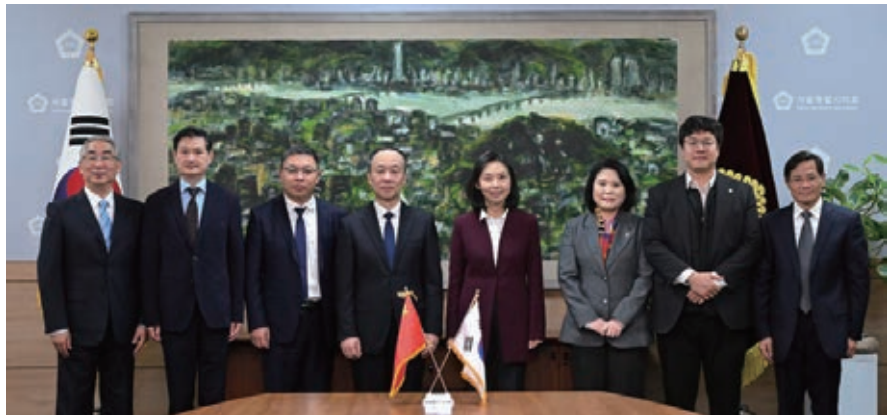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상하이인대 대표단 접견...한중 지방의회 교류 강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의 장점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

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 공덕 ▲ 마포실버케어센터 ▲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0월 23일 (목)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의 일정을 논의하였다.

이어진 연구발표회에서는 ▲지인영 위원(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이 「문화예술과 도시성장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되었다.

문화예술 종사자를 포함한 창조적 계급(과학자, 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엔테테이너, 디자이너, 건축가, 편집자 등)은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한다.

문화·창조산업(CCS)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문화예술이 단순 여가를 넘어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축이 되고 있다.

※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CCS는 연간 2조 2,500억 달러 매출과 2,9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약 2,000억 원의 생

산유발 효과와 1,300명 이상의 고용 발생했다.

서울의 문화예술 향유 시설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자치구 간 문화예술 향유 시설의 불균형이 뚜렷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류 및 K-콘텐츠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정책(관광객 유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한류와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도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장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안) 등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모델 찾는다



충남도의회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이상근 의원)'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 현실에 기반한 효율적인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정책연구원 이재일 박사가 ‘홍성·예산 행정통합 타당성 검토 및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하며 연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도청소재지인 홍성군과 예산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동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외 통합사례 분석을 통해 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상근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통합 필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남이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행정혁신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의회 분단의 현장서 ‘평화와 통일’을 외치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함성과 염원이 파주 평화누리길에 가득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7, 28일 양일간 파주 일원에서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광복 80년의 울림’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양일간 진행된 현장 정책회의는 분단 현장 감기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몸으로 실천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평화누리길 9코스 중의 하나인 리비교 문화공원에 모여 대형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민족사의 비극인 분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과 북이 함께 증오와 반목, 분열의 역사를 걷어내고 통일과 화해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의원님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 힘을 보태고,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의원들은 약 4km 정도 되는 평화누리길 제9코스를 걸으면서 분단의 현장을 직접 느끼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졌다.

저녁에는 한세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윤준영 교수의 ‘평화정책과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 “호국영웅의 희생과 용기, 보훈 실천에 앞장”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은 30일 계룡스파텔(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상이군경회 호국영웅 위안행사에 참석해 국가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상이군경회 회원,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군경회 활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내

빈 추사, 호국영웅 위로금 전달식, 오찬 순으로 진행돼 호국보훈 의식을 제고하고 명예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조원희 의장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는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를 지키는 초석이 됐고, 대전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보훈병원 등 국내 대표적인

보훈 도시로 올해 6월에는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참전용사님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서울을 바꿉니다

불편을 편리하게! 위험을 안전하게! 부패를 청렴하게!

제보기간 | 2025. 9. 12. ~ 10. 31.

제보방법 | ☎ 02-2180-7883 www.smc.seoul.kr

2025 행정사무감사 기간 | 2025. 11. 4. ~ 11. 17. [14일간]